

행정수반, 기업들의 홍콩 진출 환영... 홍콩투자청, 2026년 상반기 530억 홍콩달러 이상 유치

존 리 행정수반은 홍콩투자청이 주최한 연례 '해외 및 중국 본토 기업 환영 리셉션'에서 홍콩이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동시에 전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독특한 강점을 강조하고, 올해 상반기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기업 관계자 3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홍콩투자청은 해외 및 중국 본토 기업 413곳의 홍콩 진출 또는 사업 확장을 지원했다.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홍콩으로 유입될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여 530억 홍콩달러를 상회할 것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 380여 명



존 리 행정수반, 6월 25일 개최 연례 '해외 및 중국 본토 기업 환영 리셉션'에서 연설

으로 예상되며, 8,6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이러한 투자는 홍콩의 전략적 경제 발전과 관련된 주요 분야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북부도회구(Northern Metropolis) 개발과 밀접하게 연계된 혁신기술 분야를 비롯해, 홍콩이 세계 최대의 역외 자산관리센터로서 입지를 강화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금융·비즈니스·전문 서비스 분야, 관광객 증가와 전시 산업 활성화의 혜택을 받는 관광·숙박업 분야, 첨단 물류와 금 및 원자재 거래의 빠른 성장에 힘입은 운송·물류·산업 분야 등이 포함된다.

홍콩, 2026년 세계경쟁력연감 순위 2위로 상승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서 홍콩의 글로벌 경쟁력은 2위로 상승하였다. 이번 결과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4개 경쟁력 평가 분야 가운데, 홍콩은 정부 효율성에서 세계 2위, 기업 효율성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정부, 기업자금관리센터 발전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재경사무국고국, 세무국, 홍콩금융관리국(HKMA), 홍콩투자청이 공동 주최한 '기업자금관리센터 포럼'이 6월 9일 중앙정부청사에서 개최되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다국적 기업자금관리센터(CTC)의 핵심 허브로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홍콩 내 기업자금관리센터 발전 추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업자금관리센터 분야의 향후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bring in and go global') 플랫폼으로서 홍콩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홍콩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중국의 지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8월 3일 홍콩과 중국 본토 금융시장 간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상호 연계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조치는 홍콩과 중국 본토 기업의 성장과 역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차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지수 협력, 위안화 표시 선물상품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폴 찬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경제성장에서 창출되는 투자 기회를 중국 본토 및 해외 투자자들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국 본토 시장과 글로벌 자본을 잇는 관문으로서 홍콩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18일 크리스토퍼 후이 재무 국고부장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의 샤오위안치 부총장과 본토와 홍콩 자본시장의 상호 연계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중국 본토 보험기금의 상호

시장 접근 제도 참여를 지원하고, 중국 본토 보험 기관이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와 홍콩 증권거

래소 간 Stock Connect를 통해 홍콩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후이 재무 국고부장(우측)은 8월 18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방문해 샤오위안치 부국장(좌측)과 면담을 진행

홍콩,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과 더불어 금 중앙 청산 · 결제시스템 시범 운영 개시

홍콩은 7월 7일 새로운 금 거래 중앙 청산 · 결제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한편, 현대적이고 전 과정에 걸친 금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련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했다.

새로운 금 거래 중앙 청산 · 결제 시스템은 홍콩귀금속중앙청산유한공사(HKPMCC)가 운영하며, HKPMCC는 홍콩 정부가 전액 소유한 기관으로, 양자 간 및 장외(OTC) 금 거래에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청산 ·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HKPMCC는 정식 시스템 가동에 앞서 시범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상하이금거래소와 연계한 '딜리버리 커넥트(Delivery Connect)' 1단계 시행, 새로운 HAU 가격지표 도입, 금 보관 및 정제 역량 확대, 금 투자상품 다변화, 세제 혜택 검토, 보



홍콩 금 중앙 청산 · 결제시스템, 현대적이고 전 과정에 걸친 금 거래 생태계 구축을 위한 8개 정책과 함께 시범 운영 개시

험 관련 제도 정비, 의무적립연금(MPF)의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유연성 확대, 업계 주도 협회 설립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홍콩의 금 거래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제 금 거래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시아 기후 서밋, 홍콩에서 최초로 개최



홍콩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기후 서밋의 패널 토론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A)가 주최하는 '아시아 기후 서밋'이 올해 처음으로 홍콩에서 개최되면서, 아시아의 기후 · 녹색금융 분야에서 홍콩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었다.

크리스토퍼 후이 재무 국고부장은 이번 서밋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탄소시장과 녹색혁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라고 언급하며 홍콩은 중국 본토와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기회를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녹색금융 분야에서 선도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5년 홍콩에서 녹색 · 지속가능

금융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규모는 총 미화 76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홍콩에서 주선된 녹색 · 지속가능채권 발행 규모는 미화 약 380억 달러로, 홍콩은 2018년부터 8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홍콩은 2019년 이후 정부 지속가능채권 프로그램을 통해 미화 약 330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디지털 위안화(e-CNY)와 디지털 홍콩달러(e-HKD) 형태의 토큰화된 중앙은행 화폐를 결제 과정에 활용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해사처, 친환경 해운연료 관련 선박 대상 신규 인센티브 제도 두 건 도입

'친환경 해운연료 관련 항만사용료 지원 제도'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바이오디젤 등 지정된 친환경 연료를 사용 · 급유 · 운송하는 적격 외항선에는 항만사용료의 25% 또는 50%가 환급된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선박의 홍콩 입항이 1,000회 이상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친환경 선박 등록 인센티브 제도'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 또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적격 홍콩 등록 선박에 연간 6만 홍콩달러, 3년간 선박 한 척당 최대 18만 홍콩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약 100척의 신규 친환경 선박이 유치되고 총 170척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해운연료 bunker 및 거래 허브로서 홍콩의 선도적 입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통 · 물류국은 홍콩에서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 친환경 해운연료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음

홍콩투자청, 아세안상공회의소(홍콩) 설립 환영 및 북부도회구 시찰 행사 진행



존 리 행정수반 (첫 줄 중앙), 사우스모닝차이나포스트(SCMP) 주최 대만구-아세안 서밋(6.30)에 참석



현장 시찰 행사에 참여한 아세안 대표단 및 기업 관계자들

지난 16년간 홍콩의 제2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지켜온 아세안(ASEAN)과 중국, 홍콩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30일 '아세안상공회의소(홍콩)(ACCHK)'가 설립되었다. 아세안상공회의소(홍콩)는 북부도회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북부도회구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했다. 홍콩투자청의 지원 아래 아세안상공회의소(홍콩), 북부도회구 조정사무소, 홍콩-선전 혁신 및 기술 연구단지는 북부도회구 현장 시찰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세안 대표 및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내 홍콩 기업인 및 홍콩 소재 대학 교환학생과 함께한 추석 기념 만찬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지난 9월 15일(화),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홍콩 기업인 및 홍콩 소재 대학교 출신 교환학생들을 초청하여 추석 기념 만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부의 최근 업무 및 활동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글로벌 인재 유치·정책 정책을 함께 청취하고, 한국 내 홍콩 커뮤니티와의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추석을 맞아 홍콩 라이너를 구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가족 및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홍콩 금융 세미나 개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무역발전국 및 홍콩 투자청과 함께 경제무역익스프레스(Economic and Trade Express, ETE) 플랫폼의 일환으로 7월 8일 서울에서 '홍콩 금융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국내 주요 금융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 연사들이 디지털 자산, 패밀리 오피스, 핀테크 등 핵심 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한편, 홍콩을 지역 사업 확장, 국제 투자 및 글로벌 성장의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한 한국 기업 대표들의 사례 공유 세션도 마련되었다. 질리안 램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세미나에서 세계적인 국제 금융센터로서 홍콩이 지닌 강점과 '일국양제' 원칙 아래 중국 본토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슈퍼 커넥터'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강조했으며, 홍콩이 유동성이 풍부

한 자본시장과 견고한 금융 생태계,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및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대만과 중국 본토, 나아가 세계 각지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관문으로 홍콩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홍콩 영화 및 광둥 오페라 통해 문화교류 확대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AFAA)가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에서 주최한 '홍콩영화 갈라 프레젠테이션'을 지원했다. 개막작 '나 같은 사람(Someone Like Me)'을 비롯해 홍콩 영화 총 10편을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홍콩 영화를 알리고 홍콩과 한국 간 문화교류를 확대했다. 더불어, 홍콩의 영화 제작자와 배우 등 다수의 영화계 인사들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와 주제별 패널 토론에 참여해 한국 관객들과 창작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한편, 홍콩경제무역대표부의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광국 문화교류기금의 후원으로 성취 광둥오페라 진흥협회는 7월 25일 서울 예림당아트홀에서 홍콩의 차세대 유망주들이 참여한 광둥 오페라 공연을 두 차례 선보이며, 한국 관객들에게 광둥 오페라 특유의 매력을 소개하고 홍콩과 한국 간 문화교류를 추진했다. 공연에 앞서, 질리안 램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개막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통해 광둥 오페라의 보존과 홍보, 발전을 위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면서, 젊은 세대가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인 광둥 오페라를 계승해 국제무대에 선보이는 모습

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성취 일대일로 문화교류 - 서울 프리미어 공연을 선보인 홍콩 출신 배우들



'홍콩영화 갈라 프레젠테이션' 개막식(6.26)에 참가한 질리안 램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성취 일대일로 문화교류 - 서울 프리미어 공연 개막식 단체 사진

‘Study in Hong Kong’ 브랜드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홍콩경제무역대표부는 홍콩대 동문회 및 홍콩대 경영대학 한국 동문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6월 5일 서울에서 ‘홍콩대학교 동문 네트워크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내 홍콩대 동문 커뮤니티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문 및 각계 인사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 내 홍콩대 동문 네트워크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

었다. 이번 리셉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홍콩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장이 되었으며, 홍콩과 한국 간 인적 교류를 한층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같은 달 대표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한국의 대표적인 채용 행사인 ‘2026 글로벌 인재채용박람회’에서 Hong Kong

Talent Engage 홍보 부스를 방문하고, 홍콩중문대학교 대학원 대표단과 함께 서울에서 열린 대학원 과정 설명회에도 참석했다.

이어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해외 유학 박람회’에서는 단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며, 한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콩 유학에 대해 홍보했다.



홍콩대학교 동문 네트워킹 리셉션(6.5)



서울에서 열린 홍콩 중문대 대학원 과정 설명회, 홍콩 중문대 대학원 대표단과 함께 참석

홍콩경제무역대표부-홍콩 투자청, 한국 혁신기업 사절단 구성해 비즈니스 기회 모색

홍콩경제무역대표부와 홍콩투자청(InvestHK)은 KOTRA 홍콩무역관의 협조를 받아 AI, 소프트웨어, 로봇 분야의 유망 한국 기업 12개사로 구성된 혁신기업(I&T) 사절단의 홍콩 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홍콩을 방문한 대표단은 홍콩 사이언스 파크, 북부도회구 주요 개발지역,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단지, 사이버포트 등을 방문하며 홍콩의 혁신·기술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현지 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홍콩의 주요 I&T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둘러보았으며, 홍콩 사이언스 파크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자들에게 직접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벤처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수이키우/하춘 신개발구 커뮤니티 센터와 홍콩-선전 혁신과학기술단지를 방문해 북부도회구와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혁신 생태계에 대한 현장 이해를 높였다. 이어 사이버포트를 찾아 디지털 기술 분야 입주 기업들과 교류하고 저고도 경제 응용 전시 허브를

둘러보았다.

질리안 램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는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한국과 홍콩은 혁신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부는 앞으로도 한국과 홍콩의 I&T 분야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과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사이언스 파크 브리핑에 참석한 사절단



사절단, 홍수이키우/하춘 신개발구 커뮤니티 센터 방문 통해 북부도회구 탐방

홍콩 국제 드래곤보트 레이스 50주년

‘2026년 선라이프 홍콩 국제 드래곤보트 레이스’가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침사추이 산책로 일대에서 홍콩 최대 규모인 13일간의 축제로 개

최되며 50주년을 기념하였다.

이번 행사는 6월 27일과 28일 세계 정상급 드래곤보트 경기를 비롯해 라이브 공연, 문화 체험

워크숍, 미식·맥주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빅토리아 하버를 세계적인 스포츠·여름 축제의 중심으로 탈바꿈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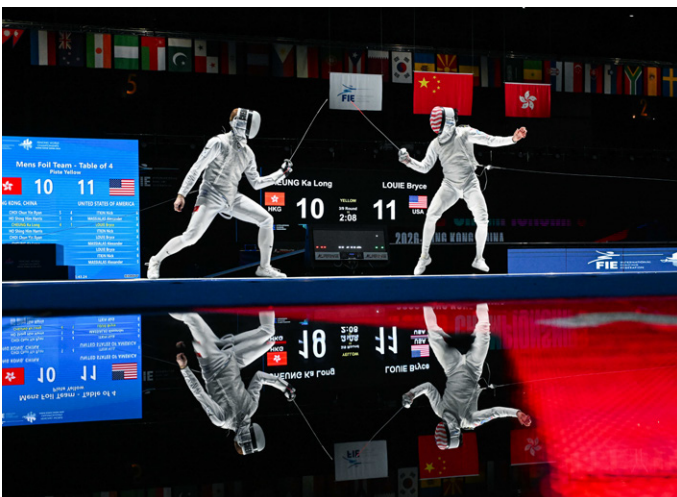


세계펜싱선수권대회, 홍콩 개최 및 사상 첫 은메달로 마무리

2026년 세계펜싱선수권대회가 7월 말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홍콩에서 세계펜싱선수권대회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9일간 세계 정상급 펜싱 선수들이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특히, 홍콩·중국 남자 플뢰레 단체팀이 남자 단체 플뢰레 종목에서 홍콩

사상 첫 은메달을 획득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



홍콩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2026년 세계펜싱선수권대회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

SPOTLIGHT HONG KONG



홍콩 축구 축제, 유럽 명문 4개 구단 참가

8월 초 열린 2026년 홍콩 축구 축제(Hong Kong Football Festival)에 유럽 정상급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시티, 첼시 FC, FC 인터나치오날레 밀라노, 유벤투스가 홍콩을 찾아 수천 명의 팬들을 열광시켰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5만 석 규모의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두 차례의 대규모 경기가 열렸으며, 이는 홍콩이 세계 정상급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지임을 증명하였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홍콩경제무역대표부**

전화: 02-736-0199 (서울 연락사무소)

페이스북 www.facebook.com/hkgreets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hkgreetskorea/

이메일: seoul_enquiry@hketotyto.gov.hk

홍콩특별행정구정부 포털사이트 www.gov.hk
정부공보처 제공 뉴스 www.news.gov.hk
브랜드홍콩 페이스북 www.facebook.com/brandhk
홍콩경제무역대표부 www.hketotyto.gov.hk/korea